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Gyeongbuk Philharmonic Orchestra

GYEONGBUK PHILHARMONIC ORCHESTRA

VIRTOUSO AND SWAN LAKE

거장과 백조의 호수

2021. **8.26.**(목) 7:30pm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주최 경상북도 주관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천마아트센터 CHUNMA ARTS CENTER

공연문의 :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053.324.7279 / 천마아트센터 053.810.1528

http://art.gb.go.kr http://www.facebook.com/gbpso @gbpo_ YouTube 경상북도도립예술단TV

본 공연은 정부의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지휘자

PROFILE

Conductor

백진현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상임지휘자 백진현은 동서대학교 대학원 교수, 중국 톈진심포니 수석객원지휘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쿠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멕시코,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몽골, 중국, 일본 등의 세계 주요 도시에서 많은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하였으며, 국내에서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충북도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강릉시립교향악단 등을 지휘하였다.

그는 2011년 일본 나고야,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오페라, 대구국제오페라 축제에서 지휘하였으며, 푸치니, 도니제티, 롯시니, 베르디, 비제, 베버, 모차르트 등 많은 작품의 오페라와 창작오페라 그리고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의 공연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궁정음악제를 비롯하여 미국(버지니아, 뉴욕,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 이태리, 중국, 태국 등 많은 국제음악제와 심포지엄에서 공연하였다.

마산시립예술단 음악감독 겸 교향악단 상임지휘자(2003~2011)로서 8년간 활동한 그는 계명대학교, 맨하탄 음악대학원(MM), 브루클린 음악원(PGD), 하트포드 대학교 음악대학원(AD), 파이스턴 국립예술대학(DMA)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능력은 많은 공연활동과 함께 그의 지휘와 연주로 제작한 C.D “Brass Friends”(2004년) 발표로 인정받았으며, 2007년 전국교향악축제에서 최고지휘자에 선정 제27회 “오늘의 음악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33회 ”부산음악상” “2019 한국음악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 200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국제음악콩쿠르”, 베를린, 홍콩, 대만 아시아음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로 음악세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그의 행보는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공연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질 예정이다.

협연자

PROFILE

Violin

박지윤

바이올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동양인종신 악장
최연소 티보 바르가 콩쿠르 우승자

2004년 티보 바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 및 청중상을 석권한 박지윤은 2005 롱 티보 크레스팽
국제 콩쿠르, 2009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으로 우아하고 성숙한
음악성을 겸비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서울바로크합주단,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야나첵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오케스트라, 니스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프라하 체임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멕시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리투아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등 국내·외 저명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고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요엘 레비와 프랑스 8개 도시 투어
연주의 협연자로 함께했다.

2019년부터는 매해 대관령음악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지속적인 초청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김동현, 양성식을 사사했으며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 전문사과정에서 로랑
도가레일, 장자크 캉토로프, 이타마르 골란을, 모차르테움 국립대학에서는
이고르 오짐을 사사했다.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와의 듀오 음반을 DUX레이블로
발매했으며 2016 년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도 함께했다.

프랑스 페이 드 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0 년 2 월, 관객과 평단의 찬사 속에서 라디오 프랑스필 악장 선임
이후 고국에서의 첫 단독 리사이틀을 가진 박지윤은
현재 안토니오·지롤라무스 아마티가 제작한 1623 년산 크레모나를
사용 중이다. (Antonio & Girolamus Amati, Cremona 1623)

프로그램
PROGRAM

P. I. Tchaikovsky
표트르 차이코프스키(1840-1893)

Suite from the ballet <The Nutcracker> Op.71 “Pas de deux”

발레모음곡 <호두까기인형> 작품번호 71 “왕자와 마리의 그랑 파드되”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 35

- Intermission -

Suite from the ballet <Swan Lake>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연주자 또는 단체사정에 의해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곡목해설

PROGRAM NOTE

Suite from the ballet <The Nutcracker> Op.71 “Grand Pas de deux”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 中 파드되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3대 발레곡 중 하나로서 소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으면서 진행되는 <호두까기 인형> 중 클라라와 왕자가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언약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랑 파드되(2인 무곡)이다.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 35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1878년에 작곡한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으로서 이곡은 연주할 수 없는 난해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세상에 나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브로츠키(A. Brodsky, 1851~1929)라는 젊은 연주가가 차이코프스키를 찾아가 자신이 이 작품을 연주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여, 1881년 12월 빈에서 초연이 이루어졌다. 이 작품은 당시 처음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으며, 비평 역시 신랄했다.
평론가 한슬릭은 이 작품을 “길고 진부한 작품”으로 평했지만 1888년 라이프치히에서 성공적인 공연으로 차이코프스키는 “기념할만한 날”이라고 했다.

제1악장 - Allegro moderato

조용한 서주와 함께 두 개의 주제가 제시되는데 여리게 도입 선율을 연주하고 주제를 다시 연주된다. 그리고 바이올린 카덴차가 연주되는데, 대단히 화려하게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에 힘입어 바이올린 독주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최상급의 작품이다.

제2악장 - Canzonetta Andante

관악기의 서주가 흐른 후 서정적인 주제를 바이올린이 노래하는데, 작곡자의 감수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음색 조절은 연주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

제3악장 - Finale Allegro Vivacissimo

오케스트라의 강력한 앙상블과 독주 바이올린 카덴차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러시아의 민속 춤곡 스타일이 물씬 풍기며 곡은 서정성과 격정 그리고 탄식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Suite from the ballet <Swan Lake> Op.20a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은 세 곡중 그 첫 번째로서 1876년 여름에 완성, 다음해 여름에 초연되었으며 후에 작곡자가 개정했다. 줄거리는 중세 독일의 전설에 바탕을 둔 낭만적인 것으로, 차이코프스키의 감미롭고 화려한 음악은 이야기의 내용에 어울린다.

젊은 왕자 지크프리트가, 축하연이 열리는 전날 밤 하늘 높이 나는 백조의 무리를 발견하자 친구와 함께 사냥하러 간다. 이 백조의 무리 속에는 마법에 의해서 모습이 바뀐 왕녀 오데트가 섞여 있다. 왕녀는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왕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지크프리트는 뜻하지 않게 인간으로 돌아간 왕녀를 만나자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왕녀는 자기의 가엾은 처지를 지크프리트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왕녀의 마법을 풀려면 과거 한번도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는 남자라야 하므로, 왕자는 기꺼이 그 임무를 맡겠다고 약속한다. 이튿날 축하연이 열렸다. 악마 로트발트는 자기 딸 오딜을 오데트의 모습으로 변장시켜 축하연 자리에 내보낸다. 그러나 왕자는 이것을 오데트라고 믿고 신부로 택한다. 이를 알게 된 오데트는 시녀와 함께 호수 속에 몸을 던져 버린다. 지크프리트가 잘못을 알았을 때 그도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넋은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서로를 포옹하는 것이었다.

제1곡 정경(Scene)

제2곡 왈츠(Valse)

제3곡 작은 백조의 춤(Dance of the Swan)

제4곡 정경(Scene)

제5곡 헝가리 무곡(Hungarian Dance. Czardas)

제6곡 스페인 무곡(Spanish dance

제7곡 나폴리 무곡(Neapolitan dance)

제8곡 폴란드 무곡(Mazurka)

제9곡 마지막 전경 (Scene Finale)

세상의 모든 음악을 연주하는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은 1997년 창단하여 경북의 혼을 담은 연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수준 높은 정신문화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1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70여회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금까지 2,000여회의 공익적 예술공연을 수행하고 있다. 도립교향악단은 수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형태의 공연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수준 높은 지역의 공연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공연장에서의 공연활동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문화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의 수려한 산천에서 펼쳐지는 '휴양림 음악회', 독도 앞바다 선상연주 '독도음악회' 등과 함께 초·중·고생을 위한 연주회와 함께 자체적인 멘토·멘티 교육프로그램으로 경북의 미래 예술자원 양성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 도민의 정서함향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립교향악단은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CRR 교향악단과의 합동공연, 201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 공연, 2017 베트남 호치민 세계문화엑스포 기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9년 중국 베이징 현대음악 제(BMMF)에 초청되어 수준 높은 공연으로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예술성을 세계속에 알렸다.
현재 제6대 상임지휘자 백진현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리더십 아래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로 교향악단의 예술적 발전과 함께 진취적이며 정성을 담은 공연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에 우뚝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단원명단**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GYEONGBUK PHILHARMONIC ORCHESTRA